2018 년 3 월 11 일 "진정 예수님을 따르려면"(마 8:18-22; 골 1:28-29)

<도입>

자크 엘룰 '뒤틀려진 기독교'
"무력함에 집중된 한편의 설교와 삶이 진정 얼마나 참아낼 수 없는 것이겠는가? 승리하려는 대의명분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 … 남을 너희 자신보다 높은 존재로 여겨라 등…"

예수를 따른다는 것, 곧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인간 본성으로는 참을 수 없고 거절하고 싶지만 구원은 주님께만 달린 문제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화된 사람일지라도 기독교 메시지는 얼마나 내 안에 남아 있는 옛 본성을 거스르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체됨을 이루며 함께 살아갈 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 함께 살피겠습니다.

[1] 무엇이 먼저인가?

누구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자신이 결단하는 바가 생기는데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주님을 잊지 않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으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 되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선순위가 요구 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골 1:28-29(읽음)**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 지체는 완전한 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는 이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 목표를 향하고 그것에 도달하는 것. 단번에 최고 목표에 이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발걸음을 내딛도록 돕는 것입니다.

빌 3:12-14 '그리스도의 푯대(참고. 엡 4:13)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경주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달리기 선수는 골 라인의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첫 출발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주를 달리는 것과 같이 성도가 정진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자훈련, 목회, 양육, 또는 목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3 중 구조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체 모임 – 예배와 선교
(2) 소그룹 – 목장, 성경공부, 기도그룹, 봉사/섬김 그룹 등…
(3) 맨투맨(1:1) – 멘토, 리더, 코치…

모든 영역의 핵심 가치는 목양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교회는 세 영역에서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은혜로운 예배, 즐거운 소그룹, 친밀한 1:1 교제도 무의미하며, 목양의 길에 약속된 유업의 축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부르심 – 배우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마 11:29"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 뿐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멍에 메고 배우려는 자세로 길들여져야 합니다. 길들여지려면 듣는 귀, 즉 **경청과 묵상**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한 기초입니다.

교회 생활 얼마간 하면 교리 및 원리가 되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없으면 자기 생각으로만 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과 원리는 들어서 알지만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음은 먼저 예배에서 이루어 집니다.

예배에 대해 우선순위. 주일예배 = 가장 종교적 형식이 분명한 의식. 이 형식 안에 주님과의 참 생명의 흐름이 담겨져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참여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공동체적 진리를 배울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모임은 형식입니다. 형식을 버리면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모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목동은 교회 목양 사역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동을 통한 교회의 목양을 돕는 것은 무엇보다 참여입니다. 그리고 목양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모임 중심에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책, 나눔, 철학 등 보다는 철저하게 예수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 말씀 공부, 묵상이 없으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내 생각'입니다. 지난 얼마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라는 대명사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제자의 정상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른다면 예수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올 수 없겠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머리가 예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중심입니다. 앞서 보신 3 중 구조 모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신호들을 잘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되고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맺음>

예수님이 택하신 연약함을 통한 구원의 도가 분명히 보이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당신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심을 기억하시십시요. 쟈크 엘룰을 다시 인용하면, 사람 본성으로는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중심의 가치 있는 선한 일을 진실한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와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예수를 왜 믿게 되었는지,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2. 자크 엘룰이 기독교 메시지가 인간이 참아내기 힘든 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스를 것을 알면서도 왜 그토록 예수 중심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3. 내가 예수 믿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